

김혜수 “소년범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누는 계기 됐으면”

25일 전면 공개 넷플릭스 ‘소년심판’ 주연 “신에 배우들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물 연기” 김민석 작가 “법정극·범죄극 아닌 가족극”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전 세계에 K-드라마 열풍을 불러일으킨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가 이번엔 법정 드라마로 열기를 이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한 판사가 지방법원의 소년형 사합의부에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10회에 걸쳐 그려냈다.

주연을 맡은 배우 김혜수(52)는 22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청소년 범죄라는 예민하고 다소 무거운 수 있는 소재를 힘 있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반가웠다”면서 “기교가 아닌 진심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쓰인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김혜수가 연기한 심은석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로, 소년범들에게 자비 없는 판결을 내린다.

그는 연화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에서 소년범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믿는 차태주(김무열 분), 재판 결과보다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 부장판사 강원중(이성민),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중시하는 부장판사 나근희(이정은)를 만나며 변화를 맞는다.

김혜수는 “대본을 받고 판사 캐릭터들을 보면서 과연 누가 맡게 될까 너무 기대했는데 캐스팅 완성 소식을 듣고 심장이 뛰어서 나올 것 같이 흥분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서로 다른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만나는 네 명의 판사들이 만드는 대립과 조화, 네 배우의 앙상블이나 시너지에 대해 매번 기대하고 현장에 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소년범을 연기한 신에 배우들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연기를 봤을 때 충격적일 정도로 놀랍고 신선했던 적도 있다. 연기 경험이라는 게 배우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물을 만들어줬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출연 배우들은 청소년 범죄를 소재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들춰낸 이 작품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혜수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나름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방향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크게 깨달았다”면서 “청소년 범죄를 향한 분노 혹은 안타까움에 불과했던 감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의 역할과 청소년 범죄, 소년범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성민(54)은 “과연 저 아이들만의 문제일까, 어른으로서 나는, 또 사회는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다.

김무열(40)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혹은 알고 있었지만 무관심했던 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 배우로서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이 생겨났다”고 했고, 이정은(52)도 “어떤 특별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시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배우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소년심판’을 위해 4년을 투자했다는 김민석 작가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해 부산, 인천, 전라도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 회복센터, 각 법원의 판사부터 시설 관계자까지 60명을 취재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이 이야기는 그레이만 하는 이야기였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취재를 도와주신 분들께 누가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 가해자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도록 경계하며 글을 썼다”고 회상했다.

또 이 작품을 법정극도, 범죄극도 아닌 가족극으로 풀어내고자 했다면서 “소년범들의 가정, 피해자 가정까지 한 사건이 터지면 얼마나 많은 파장이 일어나는지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홍종찬 PD는 “범죄의 폭력성과 난폭함이 화두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면서 “한 소년을 둘러싼 가정과 사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다른 드라마와는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혜수는 “작품이 의도한 메시지들이 진심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에 닿아서 이 시리즈를 즐기면서 청소년 범죄나 소년범에 대해 의미 있는 고민을 함께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25일 넷플릭스서 전면공개. /연합뉴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소년심판’

김혜수는 “작품이 의도한 메시지들이 진심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에 닿아서 이 시리즈를 즐기면서 청소년 범죄나 소년범에 대해 의미 있는 고민을 함께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25일 넷플릭스서 전면공개. /연합뉴스



송은이

‘마녀체력 농구부’ 송은이 “모두 뛰쳐나가 농구하고 싶어”

허니제이 “춤 연습실서 드리블” 감독 문경은 “열정 느껴져”

예능인부터 배우까지 각 분야 여자 스타들이 농구로 하나가 됐다. 개그우먼 송은이는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JTBC 예능 ‘언니들이 댄다-마녀체력 농구부’ (이하 ‘마녀체력 농구부’) 기자간담회에서 “시청자분들도 밖으로 뛰쳐나가 농구를 하고 싶어질 것”이라고 프로그램 매력을 강조했다.

지난 15일 첫선을 보인 ‘마녀체력 농구부’는 운동을 멀리했던 송은이, 장도연, 고수희, 임수향, 육지연, 별, 허니제이, 박선영 등이 처음으로 농구에 도전하는 모습을 그린다. 첫 방송에서는 멤버 8명과 문경은 감독, 현주엽 코치, 팀 매니저 정형돈이 처음 만나 팀을 결성하고, 평균나이 9.9세의 유소년 농구팀과 경기를 예고했다.

‘마녀체력 농구부’ 멤버들은 저마다 다른 표현으로 농구에 대한 진심을 밝혔다.

배우 육지연은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어서 운명이라고 느꼈다”며 “어릴 때 골목에서 축구나 농구를 하는 오빠들을 보며 구기종목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댄서 허니제이는 “몸 쓰는 일을 하는 내가 ‘운동짱’에 속할 줄은 몰



문경은(왼쪽)과 현주엽

랐다”며 “막상 공을 잡아보니 마음처럼 안돼 요새는 춤 연습실에서 드리블을 연습한다”고 말했다.

문경은은 “농구를 30년 넘게 하면서 여자들과는 연습도, 시합도 해본 적 없다”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모두 농구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게 느껴져 초심으로 돌아가 즐기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녀체력 농구부’는 JTBC 운동 예능 ‘몽쳐야 찬다’와 ‘몽쳐야 쏜다’를 선보인 제작진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될 2화에서는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초등부 팀과 경기가 펼쳐진다. ‘마녀체력 농구부’는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연합뉴스

전현무·이혜성, 2년 만에 결별



방송인 전현무(왼쪽)와 이혜성

방송인 전현무와 이혜성이 2년여간의 공개 열애 끝에 결별했다. SM C&C는 22일 “소속 아티스트 전현무와 이혜성이 최근 결별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조력자로 남을 것”이라면서 “공개된 관계였기에 더 많은 고민과 무게감을 느꼈을 만큼 앞으로의 활동도 따뜻하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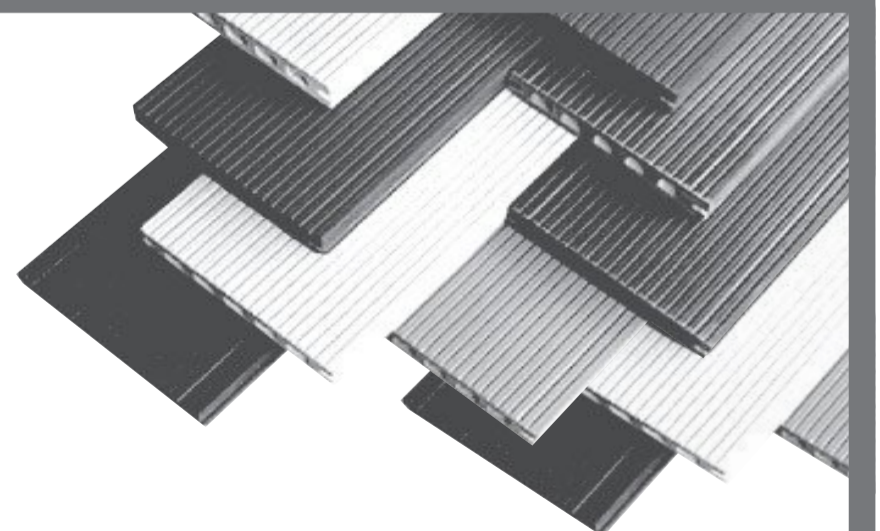
전현무와 이혜성은 2019년 11월 교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15살의 나이 차이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두 사람은 모두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는 프리랜서 선언을 한 뒤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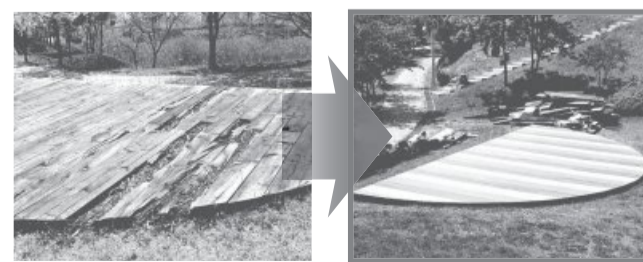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